

<컴패션 뉴스레터 1970년 5-6월호>

도미니카공화국에서의 어린이 재활

폴라(Paula)는 두 살 아기인데, 1968년 1월 급성 소아마비로 인해 양쪽 다리가 손상되었습니다. 질병이 시작된 후, 폴라의 어머니는 폴라를 재활 센터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고 양쪽 다리에 힘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쪽 다리에 착용하는 장하지 보조기(long-leg brace)와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물리치료가 처방되었습니다. 또한, 3개월에 한 번씩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폴라는 미혼모의 셋째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친자 관계를 부정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만든 잼을 팔아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계속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는 폴라와 같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다. 컴패션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망률은 1,000명당 약 110명이며, 이 중 약 3분의 1은 1세 이상의 유아에서 발생합니다. 4,156명의 공립학교 교사가 응답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3~15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장애가 확인되었습니다: 언어장애 8,468명, 지적장애 2,969명, 신체장애 1,589명, 시각장애 609명, 언어 불능 1,522명, 행동 문제 3,020명. 현재 전체 인구의 17%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약 45만 명의 학령기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장애 어린이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컴패션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최고의 시설을 갖춘 재활 센터 중 하나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소아마비 및 마비 환자, 전신 결함이 있는 환자, 지체 절단 환자, 뇌성 마비 및 근육 질환을 포함한 기타 여러 유형의 환자를 돌보기 위한 많은 서비스가 구축되었습니다.

재활 시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물리 치료: 학위를 취득한 치료사, 간호조무사 및 4명의 보조 치료원의 감독하에 진행됩니다.
2. 간호 서비스: 산모에게 올바른 위생 습관, 영양 및 예방접종에 대해 알려 주며, 필요한 경우 의약품이 제공됩니다. 수술, 실험실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한 환자는 다른 기관으로 의뢰됩니다.
3. 사회 서비스: 각 사례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연구하여 문제 해결을 돕고 치료 목적을 설명합니다.

4. 산모를 위한 교육 과정: 장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를 훈련하기 위해 센터 직원이 조직하였습니다.
5. 장애 어린이 학교: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중증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6. 지적장애 어린이 학교: 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언어 치료 및 기술을 제공 합니다. 각 어린이는 소아과 의사, 신경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및 전문 교사로 구성된 팀에 의해 진단을 받습니다. 많은 경우 필요한 교육을 처방하기 위해 심리 검사와 추가 검사가 요구됩니다.

(사진)

- 폴라 길(Paula Gil) 어린이
- 어린 소아마비 환자
- 교육 수업
- 여가 활동 시간
- 직업훈련

- 치료
- 교육 훈련
- 정형외과 서비스
- 직업 기술 교육

한국으로의 모험

- 글: 발레리 데이턴(Valerie Dayton) 후원자

몇 년 전 저는 대구에 있는 두 어린 고아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강이(Kang le)라는 소년은 피스 풀 보육원(Peaceful Orphanage)에 살고 있었고, 광복(Kwang Bok)이라는 소녀는 이스턴 라이트(Eastern Light) 보육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들로부터 사랑스러운 그림과 편지들을 받으면서 저는 어린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난 7월, 제가 제3차 컴패션 비전트립에 참가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공항에서 꽃과 노래로 저를 반겨 주었고, 저는 그들을 위해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보육원에 각각 파티를 열어주어서 나의 두 어린이들이 서로를 더 잘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과자와 사탕을 사서 강이를 데리고 광복이네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어린이들은 바닥에 앉았고, 간식은 각 어린이 앞의 신문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이들은 번갈아 가며 제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13세 소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너무 흐느껴 우는 나머지 구석으로 가 팔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방을 둘러보았더니 보모 역할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울고 있었고, 원장님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사인 김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강이가 노래를 부르던 어린 소녀의 오랫동안 잃어버린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그들은 이스턴 라이트 보육원(Eastern Light Home)에 함께 배정되었습니다. 강이는 성장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이유로 몇 년 후 더 작은 어린이들을 위한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누나인 영이는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강이와 함께 이스턴 라이트 보육원에 걸어 들어갔을 때, 영이의 감정은 북받쳐 올랐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저 멀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던 제가 이 남매를 다시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미리암 스완슨 컴패션 부대표가 마침 대구에 함께 있었고, 이들 남매가 같은 보육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으며, 이 일은 즉시 처리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예민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영이에겐 후원자가 없는 것 같았고, 후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동생이 선물과 편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에 문의했고, 후원자가 없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영이를 제 한국 가족으로 추가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세 어린이가 이스턴 라이트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4월에 저는 제4차 비전트립에 참가했습니다. 대구에 도착해 기차에서 내리자, 세 어린이 모두 꽃을 들고 달려와 저를 포옹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따뜻한 환영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제 어린 아들은 장난감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 물론 그의 누나는 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열한 살이 된 광복은 작년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 평평 울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환영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세 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조국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빌려 고대 한국의 문화 중심지인 경주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탑과 호수뿐만 아니라, 산 중턱에 조각된 거대한 불상이 있었습니다.

- 발레리 데이턴(Valerie Dayton) 후원자와 손광복(Son Kwang Bok, 왼쪽), 김강이(Kim Kang le, 오른쪽) 어린이
- 노래 부르는 김영이(Kim Yung le) 어린이

고아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말하고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구의 어린이 장로병원(Children's Hospital of Presbyterian Hospital)의 특별 사례 이력 보고입니다.

최덕순(Duk Soon Choi) 어린이의 이야기는 놀랍고 흥미진진합니다. 부산 근처의 컴패션 보육원에서 이 소녀를 발견한 컴패션 간호사 메리 앤 블룸(Mary Ann Blom) 양은 우리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로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덕순이는 그녀의 전 생애 12년 중 10년 동안 빨대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말을 할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살 때 홍역에 걸렸는데, 이 질병은 이곳 한국에서는 종종 치명적이며 항상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녀의 경우 열이 너무 높아서 입 한쪽의 조직이 녹아 서로 붙고, 회복된 후에는 그것이 굳어져 입을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틈만 남겨두었을 뿐, 입을 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 부산의 한 외과 의사가 그녀를 돕기 위해 이 흉터 조직을 잘라냈지만, 오히려 그나마 있던 틈을 더 좁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그녀의 턱도 마비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치과 의사의 엑스레이 촬영 결과 관절은 완전히 정상임이 판명되었고, 그 후 그는 흉터 조직을 제거하고 그녀의 입안에 또 다른 피부를 덧대는 수술을 했습니다.

먼저 서 박사는 허벅지에서 약 2~3인치 정도의 피부 조직을 떼어내 이른바 '피부 분리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중앙을 샌드위치처럼 여러 겹으로 접어서 꿰맸습니다. 그녀의 입안에서 모든 흉터 조직을 수술로 제거한 후 그는 "레진 플레이트(Resin Plates)"라고 불리는 재료를 사용하여 상처 가장자리에 부착했습니다.

최소한의 봉합으로 이식된 피부는 제자리를 잡았고, 약 일주일 후에는 입 안쪽에 완전히 붙었습니다. 그 후 서 박사는 "샌드위치" 이식편을 고정하던 실밥을 풀어 턱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손가락을 옆으로 벌려 입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이것은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덕순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입을 크게 벌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순이는 울었고, 간호사도 울었습니다. 게다가 덕순이가 즉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

돈 스투어트(Don Stuart)를 소개합니다.

컴패션의 본부 직원으로 새로 합류한 돈(Don) 씨는 휘튼 칼리지(Wheaton College)를 졸업하고 최근 1년간의 한국 파병을 포함해 미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스투어트 부부가 해외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 낸시(Nancy)는 서울에 있는 컴패션의 한국 사무소에서 월리 에릭슨(Wally Erickson)을 도왔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의 필요에 대해 많은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돈(Don)은 후원자 서비스팀의 관리자로 연수를 받고 있으며, 동양에서의 경험이 후원자들의 많은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르(Noor) 시각 장애인 학교에서 보내온 편지

- 아프가니스탄 카불(Kabul)

우리 시각 장애인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각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진정 큰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비록 여러 번 좌절감을 맛보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사역이 주는 기쁨과 도전은 좌절감을 보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지난 11월, 우리 학생 중 4명이 교육부의 6학년 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입학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55명의 학생 중 13명이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 두 명은 가족이 없어, 두 명의 교직원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몇몇은 이제 막 점자를 읽는 법을 배우고 있고, 다른 학생들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가장 흥미진진한 경험은 아리아나 아프간 항공(Ariana Afghan Airlines)사에서 친절하게도 어린이들을 데리고 공항을 통과하여 결국 대형 727 제트기에 탑승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멋진 상상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쿠키와 사탕이 담긴 봉지를 나누어 주어 어린이에게 완벽한 나들이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11월에는 독일 출신인 테오도르 로이쉬(Theodore Reusch) 씨가 아내 일제(Ilse)와 어린 아들 프리드홀름(Friedholm)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재 언어 공부에 집중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수공예 작업을 맡을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수공예 훈련을 받게 한 후 그들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이쉬 씨는 이 일을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았으며, 일을 시작할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학원의 기숙사 학생들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

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국의 전략적인 장소에 시각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1년 전 이란에서 우리를 찾아온 샬럿 셀프(Charlotte Self) 양은 이란 국경 근처의 도시인 헤라트(Herat)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역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현재 약 15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는 샬럿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도움이 제공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베틀 윌슨(Betty Wilson)

(사진)

누르 시각 장애인 학교 어린이들